

만남

12

2021

통권 574호

Glory to GOD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화하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 지금



구역활성화를 위한 구역장 심포지엄 개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목회적 환경 속에서 구역 사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구역활성화 심포지엄’이 11월 5일(금) 10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목양부(부장 지동춘 장로) 주관으로 구역장 대회를 대신하여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 대면 및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편 133:1~3을 바탕으로 김운성 위임목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으로 말씀을 전한 뒤 패널들의 발제와 온·오프라인 참여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18~22면)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12월, 마무리와 시작 김운성

교회창립 76주년 04 온몸으로 교회 됨을 증거해 온 교회 류영모

- 성탄특집** 06 성탄은 사랑이고 기적이며 선물입니다 조두형
09 렘브란트가 바라본 성탄: 큰 기쁨의 소식 서성록
14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편집부

특별기획 18 2021 구역활성화 심포지엄 지동춘·강명옥

- 기획연재** 23 종교개혁의 트로이카: 루터와 츠빙글리, 칼뱅 박지운
28 종교개혁 선구자, 발도파의 발자취를 찾아서 차영수

- 다음세대** 34 일과 영성 안우종
38 웹툰 <주님과 같이해요!> 이화선

땅끝까지 이르러 40 경천애인의 배움공동체 김준희

- 영락의 울타리** 43 어머니의 품같은 베다니찬양대 양성환·정오순
46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효준
48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김병삼
50 한의학으로 보는 겨울철 건강 관리 양승현

- 문화광장** 52 2021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54 진짜 나로 사는 법 서여민
56 엄마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이성숙
58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최재선
59 Happy Birthday 정지우

- 교회소식** 60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외
64 12월 목회력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예수님과 뉴엣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는 행복한 상상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기적이며 선물입니다.

일러스트 이화선

12월, 마무리와 시작

김운성 위임목사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0~12)

몇 해 전 부산에서 목회할 때 경남 사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4시 즈음에 출발해서 남해고속도로를 거쳐 사천까지 서쪽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든 생각은 저만 서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태양도 서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면서 온 산하를 비추었습니다. 세상도, 마음도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제 마음은 황홀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양과 같이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태

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집니다. 그날 인생도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쪽은 떠오르는 방향이기에 소망으로 충만하고, 서쪽은 지는 방향이기에 슬픔과 섭섭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기울어가는 태양을 다시 동쪽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늙어가는 인생을 어린 시절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쪽으로 기우는 인생을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동쪽으로 되돌리려는 희망 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라리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호렙산 근처를 뜨겁게 달구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면서 주변의 광야를 온통 붉게 물들이던 어느 날 황혼 무렵에, 모세는 양떼 곁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칠십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연수가 보통 칠십이며, 강건하다고 해도 겨우 팔십 정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보잘것없는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마치 날아가듯 신속히 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때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 애굽인을 죽였던 일과, 그것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으로부터 자신을 찾는 소식이 들리길 간절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십여 년이 지나고 보니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질없는 일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날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는 자신의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며, 그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에 기쁨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끝인 줄 알았을 때 찾아온 새 빛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새 빛이 비춰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며, 사명의 빛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

이란 길어야 팔십 세 정도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백이십 세까지 살게 하셨고, 인생 후반부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십 년은 이전의 팔십 년보다 백 배, 천 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사십 년은 광야의 절망한 목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게 했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2월입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기 직전과 같은 때입니다.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맥없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찌르는 것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월의 끝자락에 서서 서쪽을 보며 눈물짓는 우리를 떠오르는 아침 태양처럼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떴어. 다시 시작해. 내가 널 비춘다. 뭘 꾸물거려? 어서 출발해!>

그래서 12월은 마무리의 달이면서 동시에 설레는 출발의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달인 12월에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빛이 두루 비추길 원합니다. 그 빛 안에서 모세처럼 출발하길 원합니다. 2022년이 저만 큼에서 오고 있습니다. **만남**

온몸으로 교회 됨을 증거해 온 교회

영락교회 창립 7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세상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온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영락교회는 특별합니다. ‘영락’이라는 이름은 세상 가운데 포근함과 잔잔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단순히 교회의 크기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락교회가 지난 영향력은 76년 동안 걸어오며 보여준 한결같은 예수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세상과 호흡하며 76년의 세월을 지켜온 영락교회는 한국교회의 등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월남하여 첫 예배를 드렸던 한경직 목사님과 27명 성도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교회 박해를 피해 각자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첫 영락 성도였던 27명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빛어낸 기름진 밭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지금의 영락교회로 무성하고 푸르르게 자라났습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용기와 지혜로 성경 중심적 관점에서 사회를 이끄는 역할도 필

요합니다.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비전’을 보면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2일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영락교회는 이 세상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온 교회였습니다.

시대와 호흡하며 76년의 세월을 지켜온 교회

영락교회가 걸어온 70여 년의 긴 세월이 어찌 늘 평탄하고 순조롭기만 했을까요? 시대와 호흡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찌 고되지 않았을까요? 눈물과 고통으로 가슴 치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 주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고대하는 가슴 저미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6·25전쟁의 발발로 영락교회 본당을 공산군이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피난을 떠났을 때도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분의 장로와 한 분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오랜 시간을 견디고 견뎌 영락교회만의 흔적을

한국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깊고 넓게 새겼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락교회를 붙드시고 세워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영락교회가 보여준 분투와 몸부림에 깊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역시 ‘위드(With) 코로나’를 넘어 ‘비욘드(Beyond)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만큼 그 속도에 비례하여 새로운 위기가 속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주님의 지혜를 밤낮으로 구하며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성공을 자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춘 교회가 일어서야 하는 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중대한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진정한 예수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여야 가능합니다. 영락교회가 그 역할을 든든하게 감당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이 실리는『만남』은 1973년 2월 15일에 창간되었습니다.『만남』은 영락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며 그 발자취를 꾸준히 기록해온 소중한 월간지입니다. 교회 소식지 창간 후 40여 년 이어져 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영락교회와 함께 월간『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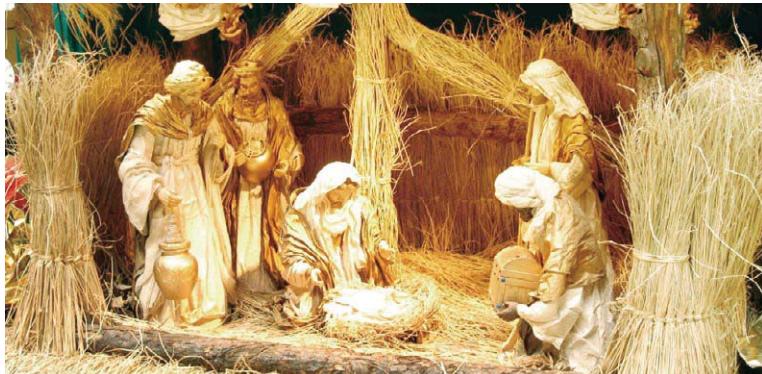
황지우 시인은 자신의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에서 “나무는 자기 몸으로/나무이다/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락교회는 여러 교회 중 하나이면서도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교회 됨을 증거해 왔습니다. 계절이 변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영락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로 더욱 힘차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영락교회의 모든 교우분께 창립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남**



류영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장
한소망교회

* 제106회기 총회 표어

성탄은 사랑이고 기적이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태어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오리게네스¹–

예수님의 탄생과 창밖의 소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분주한 연말, 한 소녀가 맨발로 거리에서 성냥을 팝니다. 두 발은 꿩꽁 얼어 울긋불긋했고, 소녀가 가진 거라고는 앞치마에 담긴 성냥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고 슬그머니 피하면서 지나갑니다. 성냥은 팔리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한 축제는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문득 소녀의 모습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여전히 춥고 공허합니다. 주어진 일도 가진 것도 초라해 보이고, 그마저도 잘되지 않습니다. 나만 불행해 보이는 일상의 거리에서 성탄도, 축제

도, 화려함도,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 성탄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탄절의 시작

성탄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던 절기인 주현절(Epiphan)에서 분리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4세기 무렵 로마에서 성탄절이 분리되어 지켜졌고,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때 처음 로마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 초기 기독교 문화에서 성탄절은 부활절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펁박과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¹ 3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 성경 주석가

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기에 예수님의 생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천천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논증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신학적 대화의 과정에서 주목받아 정립된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의 유래

성탄절은 왜 12월 25일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과 설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대 전통과 기원을 근거로 한 학자들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생명이 시작된 날과 죽은 날이 같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온전한 완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3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Apostolic Tradition)>이라는 초대교회 문서에 따르면 12월 25일의 기원이 이러한 유대교 전통과 믿음에 근거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그의 계산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3월 25일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된 수태고지 사건도 같은 날인 3월 25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3월에 수태되었으므로 9개 월이 지난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됩니다.

성탄의 의미

오늘날 성탄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여 영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는 인사 대신, ‘해피 할리데이(Happy Holiday)’라고 인사하며 성탄절의 종교적 의미를 거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전해야 할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탄은 사랑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둘째,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 성탄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가장 멀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가능한 초월적 사랑입니다. 성탄 절기에 우리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창조자가 피 조물의 세계를 뚫고 임하여 사셨습니다. 기적은 스스로 낮아질 때 일어납니다. 성탄은 모두가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낮아짐의 절기입니다.

셋째, 성탄은 선물입니다. 성탄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물’은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탄 그 자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 노력으로 사는 인생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성탄절의 풍경

“이십오일, 이날은 우리 구세주의 탄신이라. 오전 열 시에 교중 형제와 자매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회당에 모여 찬미기도 하고… 각기 일심으로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고 열두 시나 되어서 파하니라. 오후에 전날 연보한 돈으로 교우 중 빈한한 사람과 병든 이들을 차등 있게 분배하여 구제하고… 회당 앞에 등불 수백 개를 켰는데 그중에 제일 큰 십자등 한 개를 만들어 금자로 광조동방(光照東邦, 빛이 동쪽 나라에 비친다는 뜻) 네 글자를 써서 공중에 높이 달고 아이들에게 실과를 주어 기쁜 날을 표하니라”²

한국 교회 초기 성탄절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의 자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성탄의 때에 불우한 이웃들을 향한 나눔과 헌신, 돌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함께 누리고 즐기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었고, 놀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없던 시절에 문화의 장, 축제의 장으로 지역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성탄은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그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임하소서!

성냥 팔기에 실패하고 추위에 떨고 있던 소녀를 따뜻한 비전과 환상으로 인도했던 것은 작은 성냥 한 개비였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진짜 인생,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아기 예수님의 겸손한 불꽃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세상의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빛과 따뜻한 은혜가 꽁꽁 얼어붙은 이 땅과 우리네 굳은 마음에,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삶의 자리에 임하여서,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안남**



조두형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선교부(의료·농어촌)

² 〈정동 새회당에서 행한 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12월 29일자

렘브란트가 바라본 성탄: 큰 기쁨의 소식



렘브란트 자화상(1659)

예수님을 약한 자와 함께 하신 분으로 그리다

렘브란트(1606~1669)는 위대한 성경 스토리 해석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를 통틀어, 특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친 라이덴 시기와 암스테르담 시기에 그는 성경을 유화와 소묘, 에칭의 훌륭한 예술적 원천으로 삼았다. 수십 년간 창작활동을 해오는 동안 스타일의 변화, 테마적인 선택의 변화도 뒤따랐지만, 그가 한결같이 견지해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플랑드르의 루벤스처럼 무적의 슈퍼맨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약한 자와 고락을 함께하신 분으로 그리고 있다. 기존의 화가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고난 겪은 분으로 그렸고 그런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않았다. 당시에 통용되던 르네상스 미술에서 보이는 우아함이나 품위 그리고 규준 따위가 그에게는 더 이상 기준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은 외형의 화려함이나 고상함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와 진실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큰 기쁨의 소식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 1640~42, (그림 1)〉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재현한다. 누가복음 2장 8~14절을 묘사한 판화작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목자들의 반응을 각각 담고 있다.

화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단 좌측에는 왼손을 치켜든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하단 우측에는 돌연한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 놀란 목동들과 양떼, 그리고 송아지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장면이 보인다. 웅장한 구도로 되어 있



그림1) 렘브란트.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 에칭(동판화). 1640~42

는 이 작품은 뜻밖에도 가로 21cm, 세로 26cm에 불과한 소품이다. 크기로 봐서는 왜소하지만 내용과 형식이 뛰어난 서사적인 작품이다. 어느 한 부분 엉성한 구석을 발견할 수가 없고, 후미진 부분까지 치밀하게 묘사했으며 수묵화처럼 밝음과 어둠이 대조되는 풍부한 농담 효과를 자랑한다.

목동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추적해보자. 그들은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작은 안도감을 품으며 막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것이다. 하루의 피로가 물밀듯 밀려오고 잠이 쏟아진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곁에 무엇인가 나타났다. 한밤중에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광명한 빛 가운데서 돌연 천사가 출현한 것이 아닌가. 위낙 순식간에 생긴 일이라 천사를 본 것인지 허깨비를 본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인지 분간할 겨를조차 없다.

그림을 보면 목자들이 허둥대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놀란 건 목자들만이 아니다. 짐승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만나도 심장이 뛰고 겁이 나는 법인데 난생처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천사를 만났으니 오죽 놀라지 않았겠는가!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나라의 종교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났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며 랍비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아기예수 탄생을 알리셨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낫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

들이였던 고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먼저 나타났더라면? 그들은 구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자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혹은 이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Caesar Augustus)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관리에게 나타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진정한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외쳤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더 환영을 받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신분이 높거나 명망이 있거나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먼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원래 ‘목자’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양을 비롯하여 여러 가축을 기른 사람이었고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 그의 장인을 위하여 양치기로 지냈으며 다윗은 베들레헴 근교의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지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 목동들은 유대 계층에서 가장 낫은 부류에 속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주일간 양치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된 노동으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한다. 실제로 목자들은 모세의 율법 위에

다 바리새인들이 까다롭게 제정해놓은 규칙들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율법주의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굴레를 씌웠을 뿐 아니라 이런 규칙들로 인해 목동들은 출지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누가복음 2:10)’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연약하고 낫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을 보면 많은 천사가 운집해 있다. 목자들이 놀란 것은 아마 갑자기 나타난 무수한 천사무리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그림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위로 다른 천사들이 모여 있다. 성경에 기록한 ‘허다(multitude), 누가복음 2:13’라는 용어는 희랍어로 ‘만(萬)’을 가리킨다고 한다. 세 월이 지난 뒤 사도 요한은 ‘만만이요 천천(요한계 시록 5:11)’의 천사를 보았는데 어림잡아 백만의 천사를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목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장관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제목의 소묘에 선 목자들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판화에서 그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놀람은 곧 축제요 경배로 이어졌음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의 변혁

메시아의 오심을 줄거리로 하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 1646, (그림 2)>은 천사의 말을



그림2) 렘브란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 캔버스에 유채, 1646

들은 목자들이 구유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누가복음 2:1~20)을 담은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빛과 어둠의 명암법이 두드러진 야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전 그림이 흑백이라면 이 그림은 컬러로 되어 있다. 이야기의 흐름은 천사의 나타남에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목자들로 연결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에 <동방박사의 경배(1932)>를 그린 적도 있으나 그 작품보다는 <아기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 훨씬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방박사의 경배>에서는 혜롯과 동방박사의 대비에 치중한 나머지 성탄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면에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곤히 잠자고 그 옆을 마리아와 요셉이 지키고 있으며, 그 앞에 목자 한 사람이 나아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

한다. 아울러 화면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경배하는 목자, 그리고 호롱불을 원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감격해하는 목자 등이 눈에 들어온다. 양을 지키는 개와 아이의 모습, 그리고 마주 보고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여인들도 그림의 분위기를 한층 생동감 있게 만든다. 뒤편의 서성거리는 말, 그리고 나무 벽면과 사다리, 지붕 등은 이곳이 마구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마구간을 그분의 ‘궁궐’로, 구유를 그분의 ‘보좌’로 삼으셨으며 목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직책’으로 삼으셨다.

조명으로나 구도로나 모든 것이 아기 예수께 모이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목자들의 기쁨과 감격을 잔잔히 그려내고 있다. 조촐하지만 진실하고, 우중충하지만 거룩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에서 보았듯이 목자

개신교 화가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수난을 받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분으로 묘사했다.

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판에서 양 떼를 돌보고 있었으나 예고 없이 찾아온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두 눈으로 마주하고 있다. 렘브란트가 그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지 못했지만 아마 목자들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며 감정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을 것이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것’으로 인하여, 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본’ 사실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듣던 바대로 아기가 강보에 싸여 있음을 ‘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다. 인생 최대의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흔히 성탄을 ‘성육신의 축제’라고 부른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칼뱅(John Calvin)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엄위는 육체로 오신 것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로의 낮은 차원 아래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역시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에서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는 참되고 인자한 구속자가 그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시각은 메시아를 우아하고 권위 있는 분으로서가 아닌 겸손하고 연약한 분으로 묘사하게 된 배경이 된다. 고전주의에 경도된 화가들은 예수님을 영웅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반면 개신교 화가들은 우리를 위해 수난을 받고 세

상 짐을 지고 가는 분으로 묘사했다. 이런 ‘개신교의 적정률(Protestant decorum)’은 렘브란트의 회화에서 지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렘브란트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와 혀물을 덮어주신 분,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으로 웃 입게 만든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빛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신다는 내용을 함축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회복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세상에 대한 긍정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변혁해가야 하는 인간의 문화적 책임에 대해 말해준다. 요컨대 예수님은 상처와 목마름과 무질서로 엉망이 된 현실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형형한 빛은 그분이 초월 자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친 변혁자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만날**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Where Love Is, God Is

톨스토이 작(1885년) | 편집부 편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 아브데이치라는 나이 든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지하실에서 언제나 바쁘게 일했습니다. 이제 꽤 나이가 들었지만, 마틴의 구두 짓는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좋은 가죽을 써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날짜를 반드시 지켰고, 가격을 속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창문으로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 밖에 볼 수 없었지만, 마틴은 창문 너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그의 손님이었기 때문이지요. 구두에 어떤 밑창을 댔든, 어떤 가죽을 썼든, 어떤 바느질을 했든, 마틴은 자신이 만든 구두를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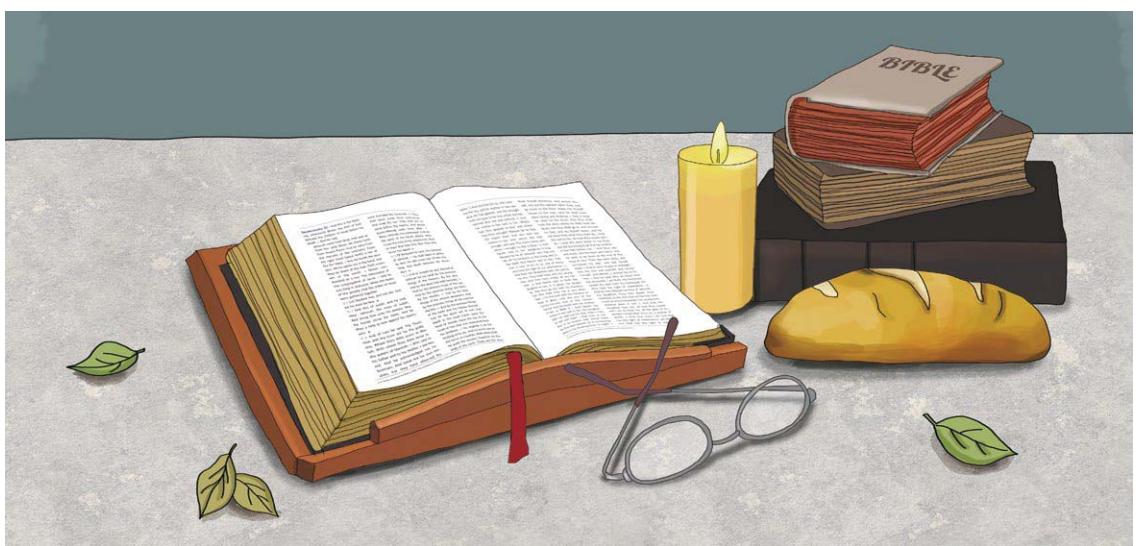
그렇게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틴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아이 셋을 두었는데 둘은 아주 어린 아기일 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막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틴은 막내를 시골에 사는 여동생 집에 보낼까도 했으나 어떻게든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가 힘들 것 같아서였지요. 가엾은 마틴! 하지만 그 아들마저도 마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 일을 돋기도 하고 마틴을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마틴은 어땠을까요? 절망에 빠진 마틴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원

망했습니다. 차라리 나이 든 자기를 데려가시지 왜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냐며 날마다 울부짖었습니다. 더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의 고향에서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마틴은 자기가 겪은 고난을 호소하며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죽게 해달라는 소원 하나뿐입니다.” 전도자는 마틴에게 “그런 말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망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기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틴이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전도자는 답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 마틴의 마음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마틴은 그날로 커다란 성경책을 샀습니다.

마틴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일에만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져 나중에는 매일매일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마틴은 등불을 켜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순간, 마틴은 자신이 바로 그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나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나…, 차를 마시면 더 마시고 싶어 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게만 지내려 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나 깜박 잠이 든 마틴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틴, 마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





가 너를 찾아가리라.” 마틴은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리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어 깽하니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마틴은 늘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피운 뒤 수프를 끓였습니다. 추위를 달래줄 따뜻한 찻주전자도 준비했지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지하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하신 목소리가 귀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마틴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주님이 어디 오고 계시려나, 두리번거리던 마틴은 미화원 스테파니치가 삽으로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일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틴은 유리창을 톡톡 두들겨 그를 부른 뒤 뜨거운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보는 마틴에게 스테파

니치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마틴이 답했습니다. “글쎄,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소.” 마틴은 전날 밤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마치 그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맞다니요? 하지만 나 자신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온전히 영접할 수 있을까 싶었다오.” 마틴은 잠결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자기를 찾아오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 스테파니치는 힘을 얻고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스테파니치가 다녀간 뒤 거의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려나 거리를 내다보던 마틴은 외투도 걸치지 못한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파랗게 질려있었습니다.

너무도 추운 날이었거든요. 마틴은 아기 엄마를 지하 작업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기에게 젓을 먹이고 몸도 좀 녹이세요” 아기 엄마가 읊먹이며 말했습니다. “젖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마틴은 자신의 아침상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닌지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것도 못 먹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수프와 빵을 차려주었습니다. “아기는 내게 잠시 맡겨요. 나도 아이를 셋이나 키워봤답니다.” 아기 엄마가 수프를 마시고 빵을 먹은 뒤 아기에게 젓을 먹이는 동안 마틴은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떠날 때 따뜻한 옷과 돈도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구두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거리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언제 오시겠다는 거지?” 애타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마틴은 누더기를 걸친 소년이 사과 장수 할머니에게서 사과 한 알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광주리에서 사과를 꺼내 가는 소년의 옷소매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소년은 발버둥을 치며 달아나려 했지만 할머니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구두를 짓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던 마틴은 안경 까지 계단에 떨어뜨리며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연민과 궁휼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마틴에게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앓지도 못하게 때려줘야 해요!” 마틴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사과 한 알 때문에 이 아이를 그렇게 때려야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순간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용

서받을 수 없어요.” 마틴의 설득에 할머니는 완전히 누그러져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호소했습니다. 가족이 일곱이었는데 이제는 딸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두 한 켤레를 다 지은 마틴은 연장을 정리하고 가죽 부스러기를 쓸어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작업실에서 마틴은 언제나처럼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실망이 뭉글뭉글 솟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하셨으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인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젯밤에 들렸던 그 목소리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틴,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마틴 앞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치우고 있던 스테파니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마틴, 나를 봐라” 이번에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아기와 떨고 있던 젊은 엄마의 형상이 지나갔습니다. “마틴, 나다, 바로 나야.” 사과를 훔쳐 달아나던 소년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나를 도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운 것이라고요. 마틴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정말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처럼 낮고 가난한 곳에,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내가 너에게 찾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날**

구역과 소그룹 연계해 새롭게 발전해야



2021 구역활성화 심포지엄을 마치고 교역자와 패널,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교회 구역 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1 구역활성화 심포지엄>이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구역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159명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제안한 <구역활성화 방안모색>을 대 주제로, ◆구역 조직과 현안(황광용 목사) ◆다변화된 사회문화 속의 구역사역(성석환 장신대 교수) ◆구역 관리와 영성(김경은 장신대 교수) ◆구역 사역의 사례(이성숙 권사) 등 4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강명옥 안수집사의 사회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과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참석 192명, 온라인 참석 174

명으로 모두 366명이 참여하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세대차이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역 사역의 어려움과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 말미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오늘 현장 참여자가 30~40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것을 보며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영락교회의 응집력을 실감한다”며 특히 다음 5가지 주제를 강조했다. 첫째 구역이 소중하다, 둘째 잘 지켜야 한다, 셋째 과감히 변해야 한다, 넷째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다섯째 구역장의 힘을 북돋워달라, 는 말씀으로 마무리 되었다. 김운성 목사는 “현재 구역이 멈추어 있다. 구역과 소그룹이 대립이 아니라 연계해야 하며 구역을 소그룹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역의 활성화는 영락교회의 미래에 너무나 소중한 과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니 영락교회의 응집력으로 구역을 활성화 해달라”고 당부 했다.

〈구역조직과 현안〉 발제를 맡은 황광용 목사(당시 목양부 담당·현 보광중앙교회)는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구역 사역 형태를 “(어르신들) 돌봄이나 케어를 위한 구역 사역과 부부 및 남성 성도들이 주말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소그룹 사역으로 다변화 할 것”을 제안했다. 황 목사는 먼저 구역목회의 장점으로 △현장성 △성도 훈련 △다양한 사역의 자리 △리더 훈련의 장을 꼽은 뒤, 구역목회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배와 친교 중심 △재생산(전도)의 필요성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구역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 여성 중심 구역조직의 다양화(주말 남성구역, 부부 구역 등) △연령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조직 구성 △구역장의 역할 재고를 제안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8개 교구에 1,119개의 구역을 두고 있으며 구역장 1,098명, 권찰 1,195명을 중심으로 권사들이 섬기고 있다. 구역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이는 60대가 가장 많아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가 24%로 그 다음. 70대가 7%로 30~40대를 합친 4.7%보다 많다. 구역 사역이 60~70대(69%)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 목사는 “구역 사역의 폭을 넓혀 소그룹 활동을 포함하여 젊은 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구역장의 역할을 다양화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구역과 소그룹의 연계를 강조했다

하여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구역장을 세우는 것과 병행해 소그룹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을 통해 구역장이 소그룹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역장 역할의 재고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역 관리와 영성〉을 발표한 김경은 교수(장신대 영성신학 전공)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기독교 영성”이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독교 영성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구역 사역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교회가 영적 우정 관계에 있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영적 공동체에는 다양한 깊이의 우정 관계가 필요하다”며 △언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환대를 위한 열린 관계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성숙한 우정을 꽂피울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



50주년기념관 드림홀 청중석을 채운 참석자들

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구역 공동체 전체가 친밀한 우정 속에 서로 환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용납하고, 중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잘 성장해갈 수 있으며, 영적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구역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영적우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도록 돋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는 실제 구역 현장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숙 권사가 <구역 사역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구역 사정과 변화의 방향을 전했다. 5년차 구역장인 이 권사가 속한 구역은 13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년 이상 된 세대가 7가정, 2년 이내에 새로 전입 세대는 3가정으로 대부분 오래된 세대들이었다. 이들 중 세대주가 60대 이상인 가정이 10 가정이고, 50대 이하는 3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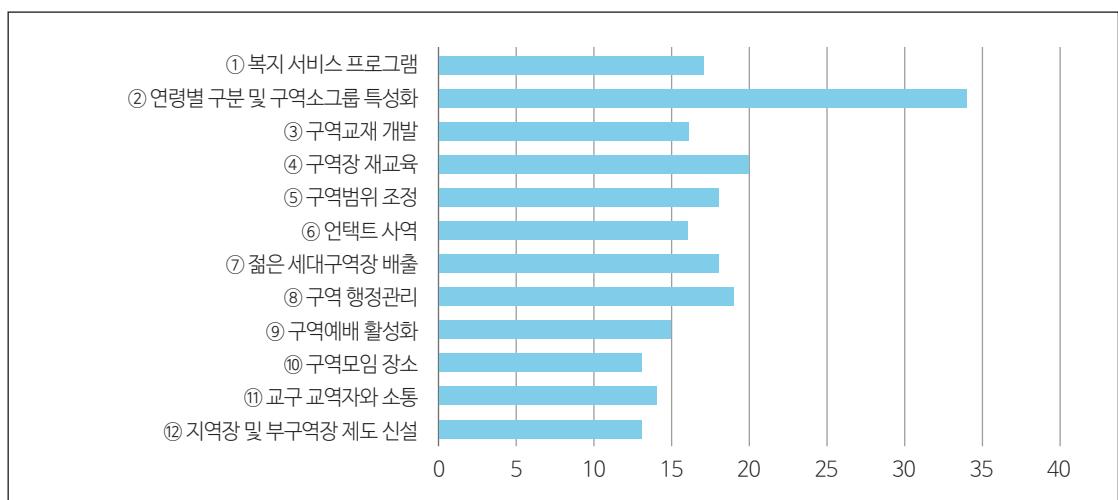
정으로 연령대가 높았다. 구역장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만남』을 우편함에 넣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씀대로 365>를 매일 문자로 보내고 있다. 구역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으며 다른 활동도 없어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없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전화심방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가정은 3가정에 불과했다. 이 권사는 “가정을 개방하지 않는 추세가 강하다. 아이를 둔 가정은 키즈 카페로, 아이들 과외 공부를 위해서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구역 예배로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밖에도 예전 같은 구역 사역이 어려운 이유들이 많다. 사회적 변화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일 때문에 구역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을 반기지 않으며 △구역장이 자주 연락하는 것을 성가셔 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권사는 구역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회변화와 세대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구역에 편입된 분에게 전화를 하면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먼저 문자를 남긴 후 통화를 하는데 교적에 있는 인적 사항을 제3자인 구역장이 알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차이다. “어르신들이 인싸, 아싸 같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젊은 분들은 심방이나 성경봉독 같은 말 자체가 뭔지 모른다. 어떤 새 신자는 성경을 읽더니 사극에 나오는 말 같다고 놀라워 했다”고 현장을 전하는 이 권사는 “젊은이들의 능동적 참여로 급성장한 당근마켓처럼 구역이 작은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큰 플랫폼이 되어 구역을 친숙하게 느끼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 가능성 중 하나가 <말씀대로 365>. 이 권사는 문자로 <말씀대로 365>를 매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의에는 사전 설문에 따른 제안과 현장 참여자와 온라인 참여자가 참여했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구역 사역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다. 먼저 △젊은 세대에 대한 케어 방향에서는 어른과 함께하는 모임 기피 현상이 지적되었고 주말을 활용한 ‘구역의 날(구역 Day)’를 갖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구역 사역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이 진행해 온 지난 2년 동안의 비대면 상황에서 신앙연륜이 적은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다. 젊은 세대는 줌을 통해 만날 수 있지만, 줌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영성 케어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화와 카톡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할 과제”라는 답이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영적인 구역 사역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앙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 형성 훈련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제

표1) 구역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제안 *



* 전체 구역장 1,098명 중 159명이 사전 온라인 참여. 중복제안 포함 총213건

시되었다. △구역원들의 이해도와 구역장 재교육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먼저 구역원들을 위해서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연합권찰공부(특강)를 활용하자는 답이 있었고 구역장 재교육은 권찰 공부 개선과 구역 예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답이 나왔다.

참여자들의 제안도 이어졌다.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213건의 제안이 있었다.(표1 참조)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기능을 수행하자는 제안에서는 부부 신혼교육, 친환경 먹거리 교육 등 교육 기반 프로그램과 지역 복지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연령별 구분 및 소그룹 특성화를 통해 소그룹을 연령별로 운영하는 한편 연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구역을 재조정하자는 의견 △구역 사역을 위해 영성-예배-공동체 인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세대 문제와 관련 △노년 세대에 대한 구역 사역과 젊은 세대 구역장의 발굴이 요청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온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역 사역 확대 △구역 행정 관리 △구역 예배 활성화 △구역 모임 장소(수·금요일) △교구 교역자 소통 △지역장 및 부구역장 제도 신설 등도 제안되었다.

목양부는 이날 심포지엄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방향 및 연구과제를 발전시켜가기로 했다. 먼저 구역의 기본적 요소인 구역장 필요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신임권사와 신임 안수집사, 기존 안수집사가 의무적으로 구역장을 지내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당회에 상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표 2참조). 또 시대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조직의 필요성

표2) 신임 구역장 충원 및 조직개선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충원	신임권사	구역장,권찰/의무	
	신임 안수집사	구역장,권찰/의무	
	기존 안수집사	구역장/의무	
조직	교구장	교구 장로	시무장로
	지역장	5개 구역	
	구역장	기존	구역사역 전문화 교육추진
임기	3년		연임가능

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교육은 현 구역장과 지역장, 교구장에 대한 재교육을 연 1회 시행하고 신임 구역장 세미나와 구역장 대회 및 심포지엄을 여는 한편 현 권찰 공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과제로 △구역 안의 소그룹화 △언택트 콘텐츠 및 구역사역 프로그램 개발 △연령별 소그룹 형태 연구 △구역예배의 방법론과 장소 대안 개발 △체계적인 구역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역 예배 교재개발 연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구역활성화 심포지엄은 영락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ngnak.net/portfolio-item/211105_symposium/)에서 2시간 분량 모두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만남](#)

목양부 부장 지동춘 장로, 차장 강명옥 안수집사

▶ 구역활성화 심포지엄 보기



종교개혁의 트로이카: 루터와 츠빙글리, 칼뱅



스위스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에는 종교개혁기념 조각이 있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운동을 펼쳤던 칼뱅(왼쪽 두번째)과 그의 동료 기욤 파렐,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 칼뱅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왼쪽부터)

때가 차매

수많은 순교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차오르고 있던 것입니다. 아비농 유수(프랑스계 교황이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이전)에서 볼 수 있듯, 교황권은 약해져 가고 유럽의 지역영주들은 힘이 세져 갑니다. 교황의 세력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던 지방 세력들, 특히 독일의 영주들은 마틴 루터의 이사상을 적극적으로 지



박지운 목사
고양·파주교구
전도부

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보급되어 루터의 주장이 온 유럽으로 퍼져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450년 구텐베르크의 첫 활판 인쇄물은 다름 아닌 성서였습니다. 활판 인쇄술이 아니었다라면 루터의 주장은 이전의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수도사들 간의 논쟁으로 끝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상황 가운데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가지 반박문을 붙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당시에는 루터를 비

롯한 그 누구도 이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1483~1546)

루터는 어떤 고행과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함을 느끼며 고뇌하다가 로마서를 통해 마침내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 된 바 오직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했듯 당시 가톨릭교회는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문에 95개 조 반박문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 95개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논하면 : '면죄부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죄를 용서하는데 교황의 권한이 없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그리스도나 성인의 선행이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량이 급감하고 교황의 권위가 추락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루터.
(영화 〈루터〉 중)

하는 상황이 되자, 교황청은 루터에게 이단의 굴레를 씌워 종교재판에 회부합니다. 루터는 〈보름스국제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 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 위험에 빠진 루터를 독일 제후들이 구하여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겨줍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최초의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서게 됩니다. 평범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불들리자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

루터, 칼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츠빙글리까지 세 사람이 종교개혁의 3두 마차, 즉 트로이카라고 불립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가톨릭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루터와 고작 2개월 나이 차이가 나는 츠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초석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 인문학에 정통하여 가톨릭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의 르네상스 이후의 인문주의자들은 'ad



츠빙글리

fontes,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그리스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에게는 고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츠빙글리에게는 교황도 전통도 철학도 그리고 역사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중요할 수 없었습니다. 츠빙글리는 예배에서 비성경적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츠빙글리는 강해 설교를 시작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루터와의 차이는 다음 문장이 보여줍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츠빙글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츠빙글리는 당대에 매

우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츠빙글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개혁합니다. 교회 내의 그림이나 성상 등 여러 상징을 떼어 내고, 성호를 굿고 분향을 하는 등의 인위적인 요소들도 다 없앴습니다. 성당마다 보관하는 성인들의 유해와 유물도 다 척결했습니다. 성직자 예복이나, 촛대, 벽 장식 무늬, 심지어 십자가까지 없었습니다. 대성당의 오르간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데 오르간의 웅장한 연주에 주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회중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은 당시 매우 이질적이며 급진적이었습니다. 그의 동상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는 가톨릭과의 전투에도 많이 참여했으며 1531년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전투인 <카펠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가톨릭군대는 츠빙글리의 시신을 불태워 사방으로 채를 뿌렸습니다.

• 정교일치사상과 청교도정신

츠빙글리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리히市 의회로 하여금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했고 모든 시민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뒤에서 이야기할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영국청교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장 칼뱅(1509~1564)

루터와 츠빙글리의 한 세대 뒤, 즉 25년 뒤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릴 만한 칼뱅입니다. 사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스위스로 피난을 떠났고 그때 스위스 제네바의 초청을 받아 종교개혁을 완수하려 간 것입니다. 우리는 칼뱅주의에 기초한 장로교 교인입니다.

얀 후스와 루터와 츠빙글리의 사상을 알고 있던 칼뱅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칼뱅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 정치를 정립한 것입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민주주의가 통합된 교회 형태를 이루는 데 골몰하며 장로교 정치 체제의 뼈대를 구상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직분

을 세우고 권징제도를 도입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기독교강요(綱要)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강요』는 칼뱅 26세 약관의 나이에 초판을 냈습니다. 이후 26년 동안 계속 개정판을 내어 50세에 최종판이 나옵니다. 5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더 장수했다면 더 개정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 강요가 매우 소중한 기독교 자산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강요를 기독교를 강요하기 위해 쓴 것이라는 농담도 있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강요(The Christian Institute)에서 라틴어 *institutio*는 교육 교정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개혁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알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박해받고 있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의 신앙을 변증할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의 전체 제목은 『모든 경건의 개요와 구원의 교리를 아는 데 필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칼뱅은 이 책이 성경의 참고서 역할을 하고, 성경을 읽어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뱅

성만찬 논쟁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성만찬 논쟁입니다.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성만찬 이론, 소위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을 거부했습니다. 화체설은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러

한 화체설은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실,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와 스위스의 츠빙글리는 이 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 루터는 ‘공재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을 주장합니다. 화체설을 부정하긴 했지만, 성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비록 빵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빵과 함께, 빵 안에, 빵 아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하여 공재설이라 합니다.
- 츠빙글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가 신앙고백하듯 하나님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츠빙글리의 이 주장을 ‘상징설(Symbolism)’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에 대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 세대 후 인물인 칼뱅은 이 둘을 중재합니다. 칼뱅은 예수님이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므로 실제적으로 성만찬에 임하지 않는다는 츠빙글리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빵과 포도주가 그저 공허한 상징에 불과하다는 말에는 동의하

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성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가톨릭이나 루터의 입장과 다른 점은 육체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뱅의 성만찬 이론을 ‘영적 임재설(Spiritual Presence)’이라고 부릅니다. 칼뱅은 예수님이 성만찬에 어떻게 임재하느냐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지 않고, ‘성만찬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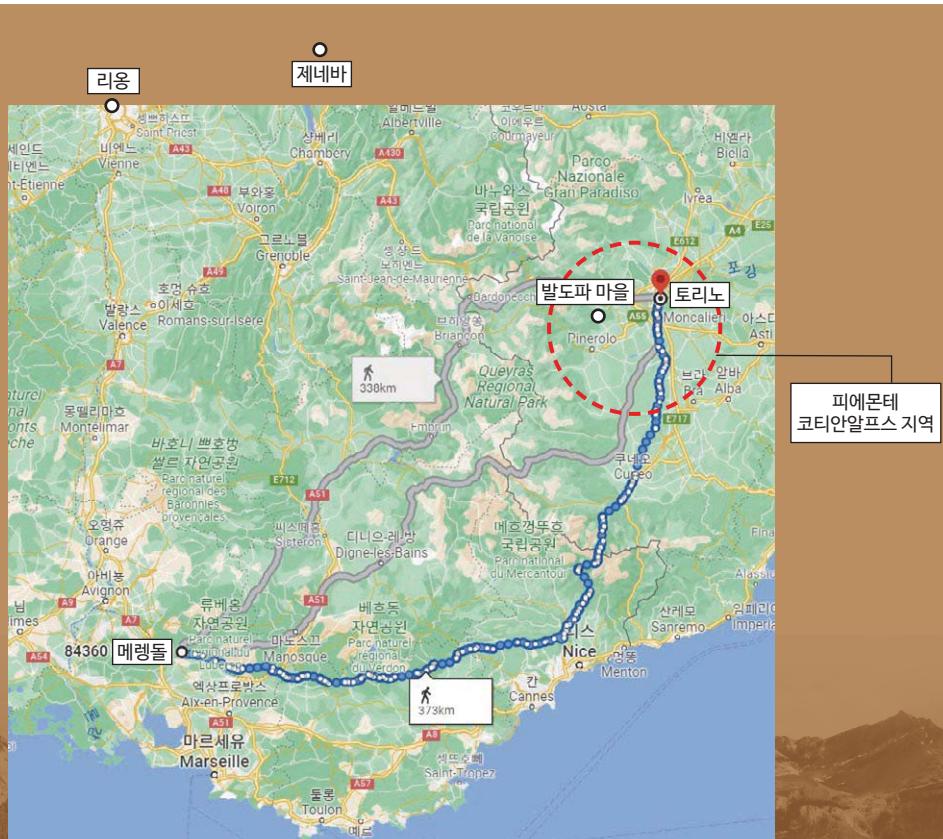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성만찬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실존적인 물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칼뱅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루터와 칼뱅과 츠빙글리, 세 사람의 신학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개혁의 방식과 속도는 달랐지만, 이들 모두가 공통으로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불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지 않고 고여 있는 신앙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적 삶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영락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날**



종교개혁 선구자, 발도파의 발자취를 찾아서

- 프랑스 메렝돌과 이탈리아 피에몬테



발도파의 탄생지 프랑스 리옹과 순교지 메렝돌,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 코티안알프스의 발도파 마을을 구글맵에서 찾아보았다. 현대의 도로를 이용하면 메렝돌에서 피에몬테 발도파 마을까지 338~373km 거리다.

우리는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라 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300여 년 먼저 종교개혁의 앞선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를 중심으로 ‘리옹의 가난한 자’들로 불리기를 원했던 발도파(Vaudois) 성도들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종교 박해 속에도 순교로 항거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낸 발도파는 “어둠 속에도 빛은 있습니다(Lux Lucet in Tenebris)”라는 그들의 좌우명처럼 빛이신 예수께서 기꺼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듯, 참으로 깜깜한 세상 안에서 복음의 빛이 되어 살기를 소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발도파의 순교 현장이었던 프랑스 메렝돌과 이탈리아 피에몬테를 중심으로 발도파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글 차영수 집사_〈만남〉편집장



프랑스 메렝돌 발도파 순교지 유적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메렝돌(Mérindol)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접한 최대의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 내륙 방향으로 들어가면 뤼베롱 산맥이 나오고 휴양지로 유명한 프로방스 지역을 만납니다. 뤼베롱 산맥에 기대앉은 작은 마을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 빈센트 반 고흐, 폴 세잔 등의 작품 배경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뤼베롱 산맥 남쪽 끝자락, 해발 200m 위치에 있는 마을이 메렝돌입니다. 여름이면 광활하게 펼쳐진 드舄스 평원에 편 보라색 라벤더꽃들로 장관을 이루는 인구 약 2천여 명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메렝돌은 멜론 특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이렇듯 한적하고 평화로운 메렝돌이지만, 470여 년 전의 이곳은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545년 4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명령을 받은 프로방스 지역 군대와 교황청에서 파견한 군대가 협공으로 메렝돌과 까브리에호 다비뇽에 거주하는 발도파 교인 3천여 명을 학살하고 인근 20

여 개가 넘는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 이들 25명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작은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동굴 입구에 불을 질러 질식시켜 죽음으로 몰아간 사실도 전해집니다. 성서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운동을 펼친 발도파에 대해 기득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가톨릭이 그들을 이단으로 단죄했고, 발도파 교인들은 박해를 받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메렝돌 박해 사건의 배경에는 ‘갈리아 교회주의’라는 프랑스 가톨릭의 독특한 이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용맹왕’으로 알려진 루이 9세는 왕권을 강화하여 근대 군주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226년부터 1270년까지 44년간에 걸쳐 통치하는 동안 가톨릭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사후인 1297년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에 의해 시성(사후에 성인 품으로 올리는 일)이 됩니다. 이후 프랑스 가톨릭은 국왕이 지배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를 수립했

고, 이러한 제정일치 이념을 이어받은 프랑수아 1세는 가톨릭에 위협적인 발도파를 국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현지의 완만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발도파 기념관이 나오고, 폐허가 된 옛 마을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78년 발도파의 후예들은 이곳에 발도파를 기념하는 명판을 세웁니다. 그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피에르 발도와 발도파 운동

메렝돌 박해 사건을 이해하려면 발도파 운동의 유래와 활동, 그리고 중심인물이었던 피에르 발도(Pierre Valdes, 1140~1217)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메렝돌에서 북쪽으로 약 266km를 더 가면 프랑스 3대 도시인 리옹(Lyon)이 나옵니다. 12세기 리옹의 부유한 포목 상인이자 은행가였던 피에르 발도는 어느 날 저녁 식사에 초대한 친구가 식사 중에 돌연히 죽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 본인도 죽으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5세기경 로마 영주의 아들 성 알렉시스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생을 살아간 이야기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마태복음 19:21)에 감동받아서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빈민을 위한 무료 급식회 공동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발도는 청빈한 삶을 살다 간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당시 라틴어 실력이 부족했던 그는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직자를 고용한 후 프랑스어 남부 방언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서 성경을 직접 읽

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과 발도파의 금 모으기 후원에 힘입어 칼뱅의 사촌인 올리베땅에 의하여 1535년 최초의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발도는 면죄부 판매 등 중세 가톨릭의 잘못을 비판하며, 프랑스어를 통해 산상수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리옹의 대주교는 발도의 복음을 전파를 금지했지만, 그는 대주교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으로’의 기치 아래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청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복음을 전파했던 발도는 타락한 중세 가톨릭의 권위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부패와 세속화에 염증을 느낀 당시 시민들은 ‘리옹의 가



피에르 발도의 동상. 독일 보름스 종교개혁기념공원에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지역의 알프스 산악지대. 해발 3,000m급 험한 산이 늘어선 이곳에 박해를 피해 발도파 교인들이 피난해 왔다

난한 자들(The Poor of Lyon)'로 불리기를 원하며
발도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후스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영향을 끼쳐

발도파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교황 루시우스 3세는 1184년 발도파를 파문했고, 1215년 열린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가 발도파를 이단으로 낙인찍은 후 발도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발도는 이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프랑스 북부 알프스 산악지대와 이탈리아, 독일, 보헤미아(오늘날 체코 서부지역)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1217년에 사망합니다. 보헤미아 프라하에서 발도의 가르침은 15세기에 활동한 얀 후스의 종교개혁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발도의 사망 후 발도파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해발

3,000m가 넘는 코티안 알프스 (Cottian Alps, 코티엔느 산맥) 지대로 피난을 하여 300년이 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발도파 교인들은 루터파 교회와 교류를 시작합니다. 1520년경 알프스의 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발도파 교인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이후 폐허로 남아 있던 프랑스 메렝 돌과 까브리에흐 다비뇽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2년에는 장 칼뱅의 동역자였던 프랑스 개혁교회 소속 기욤 파렐을 통해 칼뱅주의 개혁교회와도 협력을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는 초기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인 탓에 발도파 교인들은 칼뱅을 추종하던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공개적인 신앙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피의 부활절 학살: 피에몬테(Piedmont)

1545년 4월 메렝돌 박해 17년후, 1562년 3월 1일 파리 근교 바시에서 칼뱅주의 개혁교회 성도들로 일컬어지는 ‘위그노(Huguenot)’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이후 위그노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1598년 4월 13일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하여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프랑스 종교전쟁(일명 위그노전쟁)이 36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발도파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다시 코티안 알프스로 숨어들었고, 가톨릭의 교세가 강한 이탈리아 지역에서 발도파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인 이탈리아인들은 코티안 알프스 북쪽 경사 이탈리아 국경 근처, 피에몬테 지역의 토레펠리체와 안그로냐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피에몬테 지역의 발도파 마을이 자리를 잡아가던 중인 1655년 4월 24일 피에몬테 부활절 대학살 사건, 이른바 ‘피의 부활절 학살사건’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국경 근처에 사는 프랑스 발도파 교인들은 낭트 칙령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지역을 다스리는 사보이 공국의 카를로 에마누엘 2세는 가톨릭을 신봉하며 발도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발도파 주민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악의를 감춘 채 보병 800명과 기병 300명을 토레 펠리체와 안그로냐 등 산악지대에 있는 발도파 마을에 보내면서 주민들에게 군인들의 숙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1655년 4월 22일 발도파 주민들은 에마누엘 2세가 학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의심 없이 군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며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를 후 부활절이었던 4월 24일 새벽, 군인들은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발도파 교인들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인한 방법으로 살육하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실낙원』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 존 밀턴은 피에몬테에서의 부활절 대학살 소식을 듣고 <최근 피에몬테에서 일어난 학살>이라는 시를 지어 애통해했습니다. “복수하소서, 오 신이시여 학살당한 성인들의 뼈가 알프스 산 위에 차갑게 흘 뿌려져 있나니, 우리의 조상들이 돌과 나무를 승배할 때 당신의 오래되고 순수한 진리를 지켜왔던 그들을… 잊지 마소서, 당신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기록하소서. 피에몬테 사람들에 의하여 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알프스 산악지대에 있는 발도파 신도들 옛집



혹하게 학살된 당신을 섬기던 양들을…”

박해 속에서 지켜낸 발도파 교인들의 신앙

가톨릭 통치자들은 발도파 교인들의 생명은 짓밟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피에몬테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발도파들은 조슈아 자나벨을 중심으로 위그노 자원자를 포함한 저항 세력을 형성했고, 개신교 국가인 영국, 네덜란드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아 알프스의 혐난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사보이 공국의 계속된 공격을 물리칩니다. 조슈아 자나벨이 이끈 불굴의 전사들이 펼친 저항운동은 발도파 역사의 전설이 되었고, 제임스 바이런 허긴스라는 현대 작가는 자나벨을 주인공으로 삼아 소설『로라(Rora)』를 발표합니다. 책의 제목인 ‘로라’는 주인공의 고향 마을 이름으로 토레 펠리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에서 남은 생존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칼뱅파 교인들이 지하 통로를 만들어 발도파 주민들이 스위스와 네덜란드로 대피하도록 도왔고, 이 가운데 167명은 1656년 크리스마스에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미국 델

라웨어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보스턴으로 이주한 지 3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1689년 개신교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약 900명의 발도파 교인들이 피에몬테 지역으로 ‘영광의 복귀(Glorious Return)’를 하기도 했지만, 1685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무효화 하는 풍텐블로 칙령을 내리면서 위그노들의 종교 자유를 박탈하자 위그노를 위시한 발도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중부와 북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미국 등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발도파 교인들은 1848년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종교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1853년 피에몬테 지역의 중심 도시인 토리노에 발도파 교회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토리노 발도파 교회를 방문하여 과거 가톨릭이 발도파에 자행한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이 날 교황의 사과를 들은 토리노의 발도파 교인들은 교황에게 1532년 발도파 교회가 프랑스어로 처음 인쇄한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오늘날 발도파 교회는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세계감리교협의회(WMC)에 속한 회원 교단입니다. 피에몬테를 비롯한 이탈리아에 2만5천 명 정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에 1만 5천 명 정도가 흩어져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발도파 교회와 성도들은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남**

(다음 호에는 ‘터키 에베소’ 편이 이어집니다)



일과 영성

청년부 양육훈련 ‘피아(FWIA)’를 마치며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5일. 주일이었던 그날은 우리 영락 청년들에게 평소의 주일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한 의미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드려졌던 청년예배가 다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병행하여 재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0%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제한적 대면 예배였지만, 한 달여 전부터 8월 15일을 ‘미션워크 주일’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던 우리 청년들에게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은혜였습니다.

이날 ‘미션워크 주일예배’ 강사로 초빙된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님은 우리가 잘 아는 명품 〈샤넬백〉의 혁신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석한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총장님의 명쾌한 정리는 청년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만일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4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설교를 통해 총장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의 관리’,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 등 우리 청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말씀들을 전해주셨고, 참석한 청년들 대다수가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청년부 베다니홀 앞 로비는 미묘하게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감동, ‘일터에서의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모두가 약간은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그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겪는 고충과 일터 사역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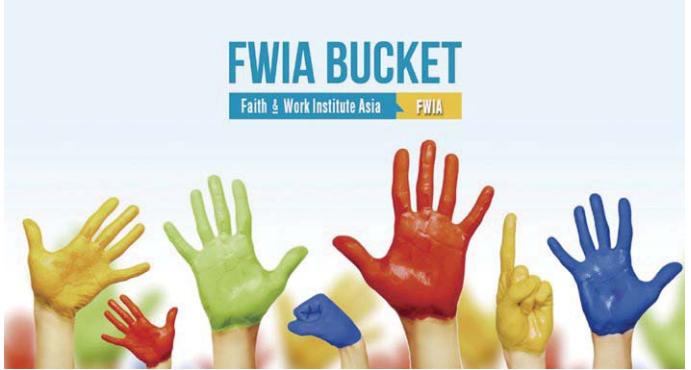
‘일과 영성’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은 8월 15일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청년부 목사님께 ‘일과 영성’을 주제로 한 양육훈련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뜨거운 반응은 청년부 하반기 양육훈련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김윤희 총장님이 대표를 맡은 피아(FWIA)¹에서 발행한 『피아 버킷(FWIA BUCKET) | 일(work)』이라는 책을 청년부 양육훈련 교재로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청년부 양육훈련의 첫 시작이기도 했

¹ 피아(FWIA)는 Faith & Work Institute Asia의 약자



‘일과 영성’ 프로그램에 참석 후 뒤풀이하는 청년들



피아(FWIA) 교재는 성경적 직장생활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던 ‘일과 영성’ 프로그램은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5주 과정으로 진행됐고, 28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일과 영성’ 프로그램을 신청한 청년들 모두 ‘일과 일터’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들고 참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피아(FWIA) 교육 과정 내용에는 ‘일(work)’이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은 우리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도 취업하기 힘든 오늘날의 현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 일자리의 비전 등 청년들의 대화 속에서 ‘일’과 관련된 내용이 큰比重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과 영성’을 주제로 한 양육훈련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양육훈련을 신청한 청년들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모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

야기를 나누기에는 온라인 모임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일과 영성’ 양육훈련 강사로 섬겨주신 청년부 최재선 목사님은 교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의 논의 결과 전체 인원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고, 줌(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여 일정 시간 청년들끼리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산하 각 부서의 리더들이 흔쾌히 소그룹 리더로 서준 덕분에 온라인에서의 소모임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도와야

청년들의 나눔과 목사님의 강의로 구성된 양육 훈련 과정은 ‘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었고 여러 가지 깨달음과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1주 차 과정은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닌 ‘베루프(Beruf)’, 즉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소명의 자리인 직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을 배웠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에서 충실히 일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직장에서 보여주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2주 차 과정은 ‘일의 시작’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된 만물은 인간을 위해 남겨주신 선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잘 관리하여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3주 차 과정은 ‘일터에서의 고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각자가 겪는 직장에서의 힘든 점 등을 솔직하게 나눴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말씀에서 일터가 가

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됨을 말해주며 우리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가시 때문에 흘리는 피와 눈물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전쟁터이기도 한 일터에서 느헤미야의 대처법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철저한 대처방안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병행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4주 차 과정에서는 각자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건축물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들어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와 과정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인 5주 차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선배인 우리 교회 차영수 집사님을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영락 청년들과 ‘일과 영성’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공개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한 30여 명의 청년은 일과 일터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집사님께 물어봤고, 집사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

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의 십일조를 내는 것에 대한 고민과 막상 이를 실행한 이후, 더욱 풍성한 퇴직금의 십일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야기, 직장에서의 현실적인 대처가 신앙적인 양심을 거스를 때 한 번씩 이를 어기다 보면 점점 이러한 양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조언, 주식 투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투자했으면 한다는 조언 등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으로 말씀해 주셔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심어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목사님의 비전의 메시지 “새로운 동기와 사명으로 일자리로 향하라”를 끝으로 5주간에 걸친 양육훈련 과정을 종료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들

무더웠던 8월부터 선선한 10월까지 이어온 ‘일과 영성’ 미션워크와 양육훈련 과정은 우리 영락 청년들에게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로 섬겨주셨던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일터에서 실천해야 할 ‘영성’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나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성과로 주어진 휴가를 팀원들과 나누고, 동료들을 위해 사내 카페테리아를 정돈

하는 등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던 나눔들은 분명 우리가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크리스천 청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부에서의 마지막 한 해를 교육부장으로 섬기면서 청년부 양육훈련을 위해 헌신하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님들과 강사님들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감사함과 함께 더욱 큰 신앙적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의 열정 어린 모습이 대단해 보였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로 참여하고 삶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영락 청년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서로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와 과정에서 주님 영광 받으셨기를 소망하며, 청년부 양육훈련과 신앙적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안우종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청년회 교육부장

주님과 같이해요!

이화선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붙어있으렴」「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면
모든 순간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보다 내 노력이 앞서지 않고
내 자리에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배움 공동체

2022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고등학교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피난 간 학교들이 미쳐 서울에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많은 청소년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야간에 ‘영락 성경구락부’와 ‘영락 성경구락부 중등부’를 영락교회에 개설한 것을 영락고등학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1952년 6월 10일 성경구락부 개설 이후 올해가 개교 69주년이 되었으며, 내년이면 개교 70주년으로 2022년은 특별한 해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영락학원 전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며, ‘은혜·진리·사랑·봉사’의 네 가지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락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학년당 7개 학급씩 총 21개 학급이

있습니다. 학생 460여 명, 교사 50여 명, 직원 및 실무사를 포함하여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락고등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의의 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봉사적 인물을 배양하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고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한 애국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모든 교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진행되는 경건회에 참여합니다. 매일 교사들이 맡은 순서에 따라 묵상한 말씀과 함께 기도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원래 했던 대로 한자리에 모여 경건회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아



영락학원 설립자 한경직 목사 흉상



교내 스터디카페 로뎀나무

침을 교사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오늘까지 영력을 있게 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 7교시는 학교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채플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고사가 있는 주간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는 오로지 영상으로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한 학년씩 돌아가며 강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천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모두가 즐거운 발걸음으로 강당으로 향합니다. <헤세드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는 학급 선교부장들의 기도, 매주 몇몇 학생들이 준비한 특송과 말씀, 축복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다수의 학생이 특송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락고등학교 예배의 전통인 '반(班) 찬양'이 부활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맞춰서 다양한 순서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이끌고, 비기독학생들이 기독교의 예배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락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 하나는 '농촌봉사활동'입니다. 농촌봉사활동은 본교의 교육 이념이자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 운영하는 <일손 돋기>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기독교 정신을 배우며 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제52기 농촌봉사대원들이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 잠시 멈추어 있지만, 이른 시일에 농촌봉사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영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신앙수련회>를 1학기 초에 진행합니다. 신앙수련회는 일과 시간을 온전히 수련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찬양팀이나 특별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 문화와 더불어 신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은 지역교회에 시간을 할애하여 청소년 사역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 행사 이외에도 매일 아침 학



방학 중에 진행한 농촌봉사활동 - 일손돕기

급별로 진행하는 ‘반별 아침 경건회’,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찬양집회인 <흘리 웨 이브>,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학교>, 매주 진행하는 <학부모 기도회>, <고 3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독교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락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더욱 나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학교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깔았고 본관 5층 자율학습실 <꿈앤팸>을 개선했습니다. 스타디카페 형식의 자유로운 수업 공간 <로템나무>를 만들고 옥상에도 학생들의 야외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책걸상과 사물함, 커튼 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교실 환경을 새롭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락고등학교와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할 학생 식당과 체육관이 지난해 공사에 들어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반

기부터는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식사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락고등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락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가오는 개교 70주년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그 동안 영락고등학교가 걸어왔던 기독교 학교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아름다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두고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준희 목사
영락고등학교 교목

어머니의 품, 고향집 같은 베다니찬양대



베다니찬양대는 1961년 4월 '장년 CE(면례회) 성가대'로 창단했다. 사진은 2001년 4월 사순절 고난음악회(지휘 백광영) |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베다니찬양대는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1년 4월 5일 조직된 베다니찬양대는 안영선 장로님을 초대 지휘자로, 김성산-윤치호 지휘자에 이어 최용익-김정해 지휘자를 거쳐 백광영 장로님이 6대 지휘자로 1984년부터 2011년까지 27년 간 지휘하시며 베다니의 색깔을 만드셨습니다. 2012년 백승현 지휘자를 새로 맞아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곡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찬양으로 수요 2부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다니찬양대는 그동안 수백 명의 대원이 거쳐갔습니다. 지금은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바리톤 4개의 성부에 90명의 대원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솔리스트는 파트별 2명씩 8명, 가장 오래 섬긴 찬양대원인 전윤주 권사님은 1984년 청년시절부터 38년째 섬기고 계신 유서 깊은 찬양대입니다.

베다니찬양대는 주일 오후 3시 10분부터 주일연습을 하고 수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경건회를 시작으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 대원이 모여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매월 첫 주 김형찬 지도 목사님 인도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11월 셋째주일부터 찬양대원의 50%가 찬양대석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11월 베다니찬양대 일동. 본당 증축 전 남쪽 정원(지금의 선교관 자리)에서. 앞줄 오른쪽이 윤치호 당시 지휘자

|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원들이 기도와 나눔으로 준비하며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다니찬양대는 해마다 가을야외수련회를 통하여 파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겨울음악수련회를 통해 음악성을 계발하는 한편 대원들의 믿음성장을 돋고 있습니다. 베다니찬양대 솔리스트가 주축이 된 토요음악회는 찬양대원과 성도들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베다니찬양대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의 교회 찬양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20여 년간 솔리스트와 부지휘자로 섬겨오신 신은혜 권사님의 지도와 수고는 베다니찬양대의 자랑입니다.

1982년 5월 9일 예일교회 초청 찬양예배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들과 메시야를 연합하여 연주하였습니다. 1985년 선교 100주년기념대회 찬양을 연

주하였고, 이후 여러 성가합창제에 매번 참석하여 교회음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베다니찬양대만의 특색을 만들어 온 분으로, 27년 간 베다니를 섬겨오신 백광영 장로님을 우선 기억하게 됩니다. 1984년 젊은 나이에 찬양대 지휘를 맡은 백 장로님은 찬양대시스템을 갖추고 정확한 곡 해석과 열정적인 지도로 새로운 찬양곡을 시도해 연주곡목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찬양곡으로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를 꼽았습니다.

후임 지휘자인 백승현 안수집사는 국제예배 IWE찬양대 지휘와 베다니찬양대 독창자를 거쳐 현재 베다니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베다니찬양대는 지난 2년 간 목말랐던 찬양을 마음껏



1994년 10월 베다니찬양대 일동 |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1 백광영 지휘자(1984~2011) 2 백승현 지휘자(2012~현재) 3 정혜연 반주자(2008~현재)



드리리라는 기쁨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성도들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며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다니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주님만 기억하시면 만족합니다. 겸손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베다니찬양대이면 좋겠습니다. **만날**



어머니가 베다니찬양대 대원이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연습실에 자주 갔습니다. 〈메시야〉를 연습하던 웅장한 합창소리…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제가 베다니찬양대와 만난 첫 인상은 그랬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저는 자연스럽게 독창자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렸을 적 어머니를 따라 다니던 저를 알아보신 권사님들께서 먼저 다가와 인사해주셨습니다. “이 권사님 딸이지? 많이 컸구나! 나 누군지 기억하니?” 베다니는 저에게 어머니의 품, 고향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독창자로 섬기면서 저는 베다니찬양대를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많은 대원들이 응원해 주고 기다려 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어서 오랫동안 잘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찬양대 부지휘자 백성미 집사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저녁 식사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영락교회 전임전도사 청빙 합격자 발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전도사 청빙의 면접 결과 합격을 통보 드립니다.”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청빙 되었다는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영락교회는 가고 싶고, 있고 싶고, 일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전임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친하게 교제하던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효준아, 영락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 처음에 어디서 배우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너의 사역의 방향과 정체성이 결정될 거야.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적 가치, 사역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교회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야!”

이 추천을 들은 저는 영락교회에 지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영락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큰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시무하셨던 교회, 한국 교회의 장자교회라는 영락교회에 청빙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부임 첫해였던 2019년, 새가족부 전담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사실 새가족부를 맡게 되었다는 보직표를 받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새가족부는 그 어떤 부서보다 사역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영락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인데, 내가 새가족들을 섬기고 사역해야 한다고?” 마음이 달혀 있는 초신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린다는 마음으로 새가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부를 섬기며 많은 새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강의와 심방, 면담도 하면서 제 안의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고 점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새가족 되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눈 시간은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 차였던 작년 하반기부터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배 준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를 짓누르고 예배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힐 때도 많았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성격과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은 부서 업무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강동·송파 교구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은 제가 담당 교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사실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교구 식구들은 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사랑을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과 찬양에 은혜받았습니다”라는 말로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말이었는데, 항상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며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교구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21일, 함께 안수받은 동기 목사님들

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3년은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서 사역 현장은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던 3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역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흩어지지만, 함께 사역했던 추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12월 19일이면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사역지로 떠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락교회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영락교회를 떠나지만, 이곳은 저의 첫 전임 사역지로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이 참 큽니다. 영락교회에서 받은 사랑은 빛진 자의 마음으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갚아 나가겠습니다. 어디서든 영락교회 교역자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영락교회와 이별은 하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언제나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

길 축복합니다. **만남**



이효준 목사
강동·송파교구
예배위원회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해방 이전 신의주 보린원 전경. 원쪽 단층주택이 한경직 목사 사택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 제2교회에 시무하시던 1939년 7월, 장애를 가진 고아 복순이로부터 시작된 영락보린원은 영락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주면서 행복하고 낮아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14명, 초등학생 24명, 중고등학생 13명, 그리고 대학생 1명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52명이 보린의 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하정에 한옥집을 구입하여 복순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영락보린원의 시작이요, 나아가 오늘날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있게 한 출발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어렵고 외로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의 이름을 보린(保隣)이라 하여 '신의주 보린원'이라 명했습니다. 신의주 보린원은 신의주 최초의 아동양육시설(고아원)로, 아이들은 신의주 제2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돌봄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과 손길이 필요한 혼자된 노인들도 한경직 목

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이듬해에는 남신의주 연사동에 장애아동,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남·북 이념의 차이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신의주 보린원에서 생활하던 원생 중 노인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신의주에 남게 되었고, 일부 아이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따라 월남하여 영락교회 인근인 충무로 2가에 <서울보린원>을 재건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적산가옥(前 가마꾸라보육원 경성지부 자리)을 불하받아 이전하여 이름을 '영락보린원'으로 변경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도 있었으나, 김원자 원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아이들이 서울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서 배로 부산에 도착한 후 다시 제주도 한림으로 피난을 갔다가 전쟁 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서울 영락보린원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영락보린원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

8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영락보린원이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큅니다. 이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분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외부인 출입과 아동의 외출이 금지되어 우리 아이들은 원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되었고, 학습과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던 자원봉사자들의 원내 출입이 불가하여 모든 대면 학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원내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학습과 프로그램을 해나갔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등교 및 취업·직업 활동을 위한 외출만 겨우 허용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거리두기에 따라 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지침이 개편되었으나, 도처에 존재하는 감염 위험요인으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우려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침에 따른 엄격한 통제에도 우리 친구들이 큰 불평 없이 잘 도와주어 지금껏 무탈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잘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

리 4명의 친구들이 모두 취업과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아이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과 격려,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후원자님들께 고맙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에서는 학업에 필요한 태블릿PC를 아이들에게 필요한 개수만큼 준비하여 주셨고,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강화도에서는 사과를 직접 수확하여 보내주시고, 간식을 지원해주신 후원자님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더없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후원자님과 웃으며 마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영락보린원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영락보린원의 양육과 돌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동들이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하게 하소서.

2. 아동들이 때를 따라 돋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주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3. 팬데믹 상황 속에도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김병삼 안수집사
중구·용산교구
영락보린원 원장

한의학으로 보는 겨울철 건강 관리

결실의 계절이 가고 겨울이 오면 모든 생명은 생기를 잃고 추위를 대비합니다. 곰, 개구리, 거북이, 미꾸라지, 다람쥐 등은 겨울잠을 자고, 제비는 따뜻한 나라로 이동합니다. 벌레들은 나뭇가지 사이나 나무줄기에 그 몸을 숨기고, 나무들은 잎이 떨어지며 그 자리에 겨울눈을 달고 봄이 올 때 까지 생명을 감춥니다.

동식물들이 겨울나기에 활동을 자제하듯이 우리 몸도 양상만 다를 뿐 겨울을 이기기에 힘을 다 합니다. 체내와 뼈 속에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시켜야만 겨울 그리고 봄과 여름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겨울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등 영양이 풍부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흔한 질환

겨울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양기(陽氣)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양기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양기가 부족하고, 살을 애는 추위와 심한 바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초겨울부터 시작되는 감기는 심하면 봄까지도

앓는 경우가 많은데다 특별히 코로나와 독감이 더 유행할 수 있는 계절이므로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이 닥쳐서야 부랴부랴 몸을 관리하기보다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을 대비하여 영양 섭취와 운동 등으로 꾸준히 몸을 다지면 보다 쉽게 건강유지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바로바로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기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전하는 한방(韓方) 조언

한방에서 건강을 말할 때는 지나치지 않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춥다고 실내에서만 지내거나 해가 일찍 진다고 잠을 많이 자는 것들은 균형과 조화를 깨는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은 몸을 약하게 하여 질병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겨울철 균형과 조화로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너무 과로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겨울에는 일찍 잠이 들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일어나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후 일어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상 해가 늦게 뜨므로 자연에 순응하여 그 시간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즉 봄이나 가을보다 늦게 일어나라는 말이며 휴식을 충분히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기만 해도 안 되겠죠. 햇볕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 외기욕과 일광욕을 즐겨서 비타민D 합성을 활발하게 하고 멜라토닌 등 호르몬 분비도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승현 집사
고양·파주교구
한의사



겨울은 섭생이 중요한 계절이다. 겨울에는 온열성 음식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단련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겨울에는 양기가 부족합니다. 태양은 대표적인 양기의 표상이며 근원이므로 음기가 성한 겨울철에는 햇볕의 도움을 받아 양기를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기를 돋우는 또 다른 방법은 추위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에 머무르니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추위를 멀리하고 따뜻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양기를 닫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 적당한 운동을 위해 따뜻한 낮 시간에 바깥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양질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다시 오는 봄에도 아프지 않고 거뜬히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을 위한 섭생법(攝生法)

가을이 거두어들이는 계절이라면 겨울은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흔히 가을철을 보약 먹는 계절로 알지만 대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르면 오히려 겨울철이야말로 보(補)가 되는 음식이나 약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계절입니다. 잣은 피로를 호소하거나 질병에 자주 걸리는 등 허약하신 분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난다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좋은 음식은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온열(溫熱)성 음식이 좋습니다. 온은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부드럽게 하며, 열은 몸을 덥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온열성 음식으로 쇠고기, 닭고기 등의 고단백 식품과 새우, 정어리, 고등어, 장어, 굴, 당근, 부추, 마늘, 양파, 호박, 밤, 잣, 땅콩, 호두, 인삼, 생강, 계피, 총백(파의 흰 밑동), 소회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더운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열이 많은 분들은 온열성 음식을 오래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드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특히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1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2020 북적북적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운성 목사와 최우수상 수상자들(왼쪽 사진부터 청년부 서여민 성도, 장년부 이성숙 권사)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이 <혼돈의 시대, 나를 찾아가는 길: 이 세상에서 “찐” 나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청·장년부, 중·고등부와 대학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산하 7개 기독교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독서감상문, 독서편지, 회화, 웹툰, UCC 5개 응모부문에서 총 370편의 작품이 접수되

었습니다.

홍보출판부와 영락미술가협회, IT미디어부 봉사자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응모작들을 대상으로 작품 가운데 선정도서의 주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잘 담아내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부분별 평가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2편, 우수상 21편, 장려상 32편 이상 6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4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고, 7개 기독교학교의 시상식은 학교

■ 일반부 수상작

	소속	성명	응모부문	선택도서 및 제목
최우수상	청년부	서여민	독서감상문	『청년의 시간』 진짜 나로 사는 법
	장년부	이성숙	독서편지	『청년의 시간』 엄마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우수상	장년부	김혜숙	독서감상문	『청년의 시간』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며
	장년부	박찬규	독서감상문	『청년의 시간』 공부(工夫)로 예배(禮拜)하는 자, 인사(人事)로 예배(禮拜)하는 자
	장년부	신해영	독서감상문	『회복력 있는 신앙』 복음만이 답이다
	장년부	최동석	회화	『オス왈드 챔버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
장려상	대학부	박창조	독서감상문	『オス왈드 챔버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부족한 정체성
	청년부	김윤아	독서편지	『청년의 시간』 영락 청년의 청년됨은 주님의 은혜
	장년부	안세진	독서감상문	『청년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영락의 젊은 세대
	장년부	유상희	독서감상문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땅으로 내려온 구원의 삶
	장년부	이정애	독서편지	『オス왈드 챔버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에게 귀한 빛을 안겨준 친구 '자'에게

■ 중·고등부 수상작

	소속	성명	응모부문	선택도서 및 제목
최우수상	중등부	장현규	독서감상문	생각이 내가 된다
우수상	고등부	장 강	독서감상문	생각이 내가 된다
	중등부	김경민	UCC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별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11월 7일(주일)부터 21일(주일)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믿지 않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앙인들에게는 신

앙의 정체성과 회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이자, 깊어가는 가을만큼 우리 각자의 신앙 역시 더욱 깊어지고 무르익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남**

제공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진짜 나로 사는 법

무얼 위해 달리나

오전 9시. 매일 해야 할 것이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QT 시간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 주일 예배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굳게 다짐했건만 그것도 잠시 월요일 아침부터 자취를 감춘다. 크리스천의 양심상 매주 반복되는 죄책감에 힘들어할 때, 도서『청년의 시간(풀 손)』을 읽게 되었다.

저자는 좋은 학벌에 남부러운 것 없는 최고 기업에서 성공을 보장받은 엘리트였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버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따라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퇴사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일까.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안고 책장을 넘겼다.

첫 장은 저자가 어린 시절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허탈감을 느끼던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상의 별을 향해 달려가는 욕심 많던 그의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미모, 인기와 성령 충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싶었다. 그러던 중 한 문장이 눈에 흑 들어왔다.

“풀 손, 왜 그리 바쁘게 살아? 도대체 뭘 증명 해 보이려는 거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 하고 있었다. 세상 기준에 발맞추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평계로 바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과 노력과 생명을 갈아 넣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야지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발끝에도 못 미치지 않는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성과 결과물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바울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너무도 당연한 건데 새삼스레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돌아보면 우리 가족은 시험을 잘 보거나 1등을 해야 칭찬해 주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말을 입으로는 암송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정말 귀한 작품들이다. 늘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쫓으며 끝없는 허탈감을 느끼고, 크리스천이라면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찾아가 위로하고 싶다.

소명에 대한 오해

“소명은 나의 성격과 타고난 재능, 열정, 인생

의 경험이 겹치는 교차점으로…”

대청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찾으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소명을 성스럽고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하다 보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모호했다. 지금 내 일에 대한 소명의식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일하는 곳은 내 성적인 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불평만 쌓이고, 일이 힘들 때는 사표 내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소명이 아닐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평범한 일상’도 소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나의 고정관념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려고 열심히 달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고민해 볼 시간이 부족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근사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된나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참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 비교가 사라지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후 가장 큰 변화는 과

거에 남들의 이목을 무척이나 신경 쓰던 내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한 것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추억으로 가득 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살기를 –매일매일 사단은 공격을 멈추지 않지만–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지키기를 결단하게 되었다.

예전 목사님 설교 중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쓴 일기나 자서전(세상의 성공과 업적)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아직도 성격이 급해서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지만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내 인생의 짐을 내려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익한 종에게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양합니다.’ **만남**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서여민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엄마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내 기억으로는 네가 집을 떠나 군에 갔을 때였으니… 그 후로 너는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으니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간 세월을 실감하는구나.

교회에서 독후감 공모를 한다며 추천해 준 <청년의 시간>이란 책 제목을 보면서 네 생각이 나서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어.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도 들었고.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단다.

네가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할 때, 엄마는 마냥 어려 보이기만 하는 네가 일터라는 거대한 파도를 힘겹게 타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엄마와 아빠는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한데 취업 된 것이 다행이고, 적응되면 괜찮아 질 거야” 하며 너를 달랬었지.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러 너도 가정을 이루고 바쁜 일상을 사느라 자주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 그래서 지금의 고민은 잘 모르지만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 주고 싶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네가 누구냐’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것은 소명과 연관되어 있지. ‘소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관리 대상임을 깨닫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의 품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소명이란다.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의 뜻을 알아야 하겠지. 어떻게 해야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젊은 너는 살아가면서 뜻밖의 생의 여러 갈림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 삶의 어떤 영역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좋으신 그분은 너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주실 거야.

소명이라는 이정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책에서는 이런 도움의 말을 하더구나. 너의 타고난 성격, 너의 남다른 재능, 너의 솟구치는 열정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각각 원으로 그릴 때 네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을 깊이 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야.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는지 알려면 영

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한 일이야. 먼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 또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너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방향성이 보일 거야. 그래서 기도와 교회 공동체는 중요해. 너의 생을 너만의 유익이 아니라 청지기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사용한다면 너는 가정과 직장에서 거짓되고 분열된 삶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통합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어.

책 첫머리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엄마는 사실 좀 난감했어. 이 나이에 꿈이라니… 무슨 꿈을 가져야 하는 걸까? 하고 그러나 책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단다. 하물며 아직 청년의 때를 사는 너는 어떻겠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성공하는 것 이란다. 무엇을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소명을 진지하게 찾아보렴. 믿음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감정을 결정하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더구나.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시 하다 보면 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될 거야. 생각해 보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살맛나는 인생일지…

얼마 전에 있었던 동경올림픽 탁구 경기에서 17세인 신유빈 선수가 58세인 니시아리안 선수를 접전 끝에 이겼는데, 경기가 끝난 후 신유빈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어려운 상대였지

만, 그래도 같이 풀어나가면서 좋은 경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니시아리안 선수는 신유빈 선수를 칭찬하면서 자신과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했지. “오늘의 나는 내일 보다 젊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최선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와 용기를 주는 말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감정과 오버랩 되더구나. 너를 생각하면서 선택한 <청년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가 하나가 되어, 영적인 성장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해지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인생에서 너만의 소명을 발견하고 네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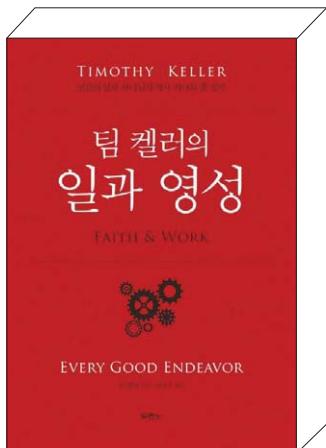
네가 엄마의 아들인 것이 행복해, 그리고 내가 너의 엄마가 된 것
을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 **만남**



이성숙
권사
서초교구

팀 켈러의 『일과 영성』

-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줄 잇기



팀 켈러 지음/최종훈 옮김/두란노서원/2013년

한 사람의 전체 인생에서 또는 한 주간 7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는 바로 ‘일터’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연봉과 근무환경이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되거나 이직할 때는 다른 이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느끼며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못한 성과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좌천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때는 참으로 그것만큼 힘들고 서글픈 시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 일터를 떠올리게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같이 어떻게든 고통을 인내하며,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괴로움의 현장이 떠오르곤 합-

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까요?

『일과 영성』의 저자 팀 켈러(Timothy J. Keller) 목사는, 기독교 신앙과 일터 사이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 노동의 영역으로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생각들에 대해 도전하며 일과 신앙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영역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의 관점으로 재해석 함으로써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복음적 시각에서의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시원하게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세상적 가치관과 문화관,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일 자체를 단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세상적 권세와 성취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쌓고 살아가기 위한 탐욕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된 일의 의미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신선한 통찰력과 도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남



최재선 목사
청년부
자원봉사부

Happy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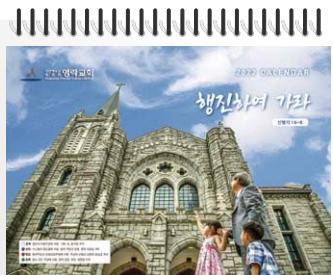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 빛으로 인해 어둡던 세상이 모양을 찾았으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옛날 동방박사가 보았던) 별을 향해 천지 만물이 눈을 들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빛과 아름다운 색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빛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온 우주 생물들은 저마다의 모습과 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Happy Birthday!! **만날**



정지우 성도_강서·구로·양천교구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12월 3일부터 배포

홍보출판부는 2022년 교회표어인 ‘행진하여 가라(신명기1:6~8)’를 주제로 새해 교회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행진(March)’과 ‘함께(With)’를 중심 테마로 삼은 새해 달력은 위드 코로나 시대 신앙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달력 사진에 담았습니다. 선교관 앞에서 주님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는 대학부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1월 사진을 필두로, 영락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활절 기도 퍼포먼스, 유치부 어린이들의 공연, 인도네시아 의료선교, 영락기도원에서 열린 산상기도회, 2021년 선교대회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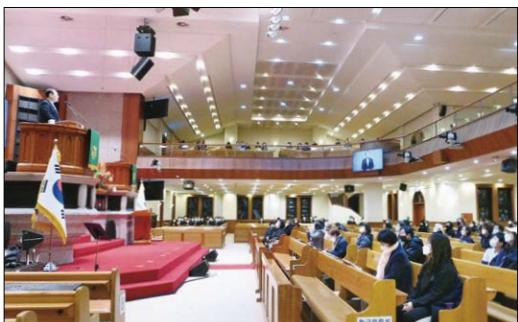
뮤지컬 <바울> 공연, 풍성한 추수감사절 제단 등을 월별 사진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달력의 내구성을 높이고자 월별 단면으로 판형을 변경했으며, 디자인과 서체 선정에도 정성을 기울여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새해 달력은 12월 3일(금요일)부터 구역별로 구역장 또는 구역봉사자 한 분이 대표 수령하여 세대별로 배포 됩니다. 새로운 모습의 교회 달력이 한 해 동안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그 쓰임이 다하기를 바랍니다. 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신 교회 내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형 집사_홍보출판부 홍보분과위원장

교회소식

news letter

“주여, 살게 하소서!”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5일(월)부터 20 일(토)까지 매일 아침 6시(토요일 6:30) ‘주여, 살게 하소서’란 주제로 본당에서 열렸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많은 교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매일 교구별로 선정된 중·장년과 교회학

교 자녀들이 요일별 대표 기도자로 세워져 기도회의 은혜를 더했다.

기도회 기간 <하박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고백을 소개하며, “광야같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면서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함으로써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경험하길 기원한다”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박국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을 체험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역자 동정

황광용 목사 사임, 보광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목양부와 마포·영등포교구를 맡아 사역해오던 황광용 목사가 11월 14일 자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보광중앙교회(서울시 용산구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지난 2015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황광용 목사는 그동안 강북·도봉교구와 자원봉사부를 시작으로 강남교구, 종로·성북교구, 마포·영등포교구와 새가족부, 친교부, 예배위원회, 음악부, 목양부 등을 맡아 사역해왔다. 황 목사는 11월 14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9:10~17절을 본문 삼아 ‘빈 들에서 주님을 뵈오니’라는 제목의 이임 설교를 전했다.

보광중앙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bkch.com

입시와 취업을 위한 비전기도회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와 예배가 고등부와 대학부, 베드로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11월 6 일(토)과 13일(토) 오후에는 비전기도회, 14일(주일) 고등 부 주일예배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비전예배로 드 렸다. 수능 당일이었던 18일(목)에는 대입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 분까지 벤엘기도실에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열렸다.

‘비전기도회’와 ‘비전예배’, ‘수능 당일 기도회’는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등부 3학년 학생들과 베드로부·대학부 자녀 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매년 대입 수능을 앞둔 시기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수능을 앞두고 대면 예배가 조금씩 회 복되는 가운데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한 시



간이 되었다. ‘수능 당일 기도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 성도들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했다.

제공 고등부 사진 원종석 기자

대학부·청년부 <한경직 따라 살기> 공모전



곡, 웹툰) 등의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 포함 총 12팀이 참여 했으며 작곡 부문에 응모한 청년부 지예은 성도(사진)가 금 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11월 14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21 북적 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열렸고, 11월 7일부 터 21일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대학부와 청년부 소속 젊은이 들을 대상으로 <2021 한경직 따라 살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올해 새로이 신설된 <한경직 따라 살기> 공모전은 은유 와 겸손, 사랑으로 집약되는 한경직 목사의 목회 사상과 복 음주의적 신앙유산을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행사 공모에는 독후감과 UCC 영상, 자유 형식(작

<한경직 따라 살기> 공모전 수상작

구 분	응모 분야	소속 부서	이 름
금 상	작곡	청년부	지예은
은 상	독후감	청년부	안은지
		대학부	윤영주
	영상	청년부	꿈꾸는땅(단체)
동 상	독후감	청년부	선종현
		대학부	장수희
			이기훈

2022 항존직 선거 … 장로 8명, 안수집사 19명 피택



2022년 항존직 선거가 지난 9월 26일(주일)부터 15일간의 후보 추천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14일과 21일(이상 주일) 두 차례의 투표를 거쳐 장로 8명, 안수집사 19명

을 선출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된 이번 항존직 선거는 투표 당일 기표소마다 신실한 청지기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선거 관리의 실무를 맡은 선거집행위원회는 QR체크를 통한 교적 확인 작업으로 투표에 참여한 성도들의 편의를 높였으며, 투표장 곳곳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은 원활한 선거 진행을 도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항존직 피택자들은 내년 한 해 동안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주일인 12월 4일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게 된다.

2022 항존직 선거 피택자

장	로 손동호 오현택 임영환 김광식 김주현 김무섭 김철승 장덕권
안수집사	김우철 김동환 이호정 임대현 박승근 김준한 박종희 조동일 최영호 차영수 강신웅 이덕주
	김성락 김영택 이승호 강현근 설근동 신언병 김한성

취재 장덕진 편집전문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의료선교부, 기증받은 마스크 20만장 교회内外 기관·단체에 전달

의료선교부(부장 김경오 장로)는 11월 12일(금) 국내선교 단체인 누리나래선교회를 통해 마스크 20만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마스크 기증은 나노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톱텍과 국제NGO 브링업인터내셔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의료선교부는 기증 받은 마스크를 선교부와 남선교회 등에 배분했고, 배분된 마스크는 국내 지역교회 및 미자립 농어촌교회, 자유인 관련기관, 해외 파송선교사, 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 혜민리사역 등에 전달됐다.



의료선교부는 이번 마스크 기증 행사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김덕원 은퇴장로 별세, 11월 10일 교회장

김덕원 은퇴장로가 지난 11월 8일(월)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1932년 평북 의주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1988년 12월 집사 안수 후 유아부 부감, 소년부 부감, 관리부 차장, 갈보리찬양대 부대장 등을 역임했다. 1996년 12월 제28회 시무장으로 장립된 후에는 관리부장, 베다니찬양대장, 서울노회 총대 등을 역임하며 2002년까지 당회원으로 시무하면서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11월 10일(수) 오전 8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교회장으로 열렸다.

집례를 맡은 김운성 위임
목사는 요한계시록 21:1
~7절을 본문 삼아 ‘하나
님의 아들’이란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
를 전했고 김규홍 은퇴장
로가 조사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영락교회공
원묘원에서 박지운 목사(고양·파주교구) 집례로 엄수
된 하관예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간 고인은 유족으로
부인 장영진 은퇴권사와 1남 1여의 자녀를 두었다.



교계소식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명확히 알린다”… 서울 전역 걷기 캠페인 펼쳐져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11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교계와 50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이란 타이틀로 진행한 이번 거리 캠페인은 15일 낮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일간 여의도와 영등포, 명동 일대, 서초역과 삼성역, 강북구와 중랑구, 광진구 일대에서 릴레이로 행진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남녀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풍선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알렸다.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됐던 차별금지법은 국민 정서와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의 자유는 억압해 역사별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입법 반대 캠페인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12월 목회력

3일 (금)	연합권찰공부 하반기 종강
4일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5일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교회창립76주년, 임직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12일(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부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제직회, 친양예배 성찬, 원포인트 교육주간
19일(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유아세례식,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24일(금)	성탄절음악회
25일(토)	성탄절, 전세대가 참여하는 성탄예배
26일(주일)	은퇴식, 심방준비회

※ 12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호 통권 574호

발 행 2021. 1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윤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미로찾기

동방박사 세사람이 미로 속 황금과 유향, 몰약을 가지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길을 찾아보세요.



영락화랑

Happy Birthday



정지우, Mixed media, 53.0×45.5cm, 2019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이로라 (요한복음 12:46)